

다시 주목받는 선벨트



남해안권 개발계획 동력 재충전

‘남해안 시대’ 주창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으로 탄력 기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내정을 계기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그가 도지사 시절, 박준영 전남지사와 공동으로 부산·경남·전남을 잇는 남해안권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육성하자는 내용의 '남해안 시대'를 주창해온 만큼 이번 총리 내정을 계기로 남해안권(선벨트) 발전 종합 계획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각별하다. 현재 남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지난 2007년 말 '동·서·남해안권특별법'이 제정된 뒤 2009년 12월 정부의 '2009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초광역개발권 5대 추진방향과 4대 벨트 기본구상'이 발표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태양이 비치는 지대'라는 뜻의 선(Sun) 벨트라는 용어는 기본 구상에서 제시된 것으로,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블루벨트), 남북교류 접경벨트(평화애코벨트)와 함께 남해안에 일조할 이 풍부한 점을 고려해 붙여진 별명이다. 이후 지난 5월 제 1차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에서 기본구상을 구체화한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이 심의·의결되면서 가시화됐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골자는 오는 2020년까지 24조3000억원을 투입해 ▲세계적 해양 관광·휴양지대 조성 ▲글로벌 경제·물류 거점 육성 ▲통합인프라 및 초광역 네트워크 구축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을 목표로 개발하는 것으로, 166개의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적 해양 관광·휴양지대를 조성하기 위해 거점별·테마별로 ▲한려수도권(여수~사천~통영~거제) ▲다도해권(신안~진도~완도, 기타 섬 지역) ▲남도문화권(강진~순천~남해) ▲도심권(고흥·사천) ▲해상영양벨트(진도~진해~거제) ▲남도문화탐방벨트(해남~진도~통영)로 나눠 차별화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한려수도의 경우 청정해역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단지·친환경 리조트·가족휴양단지 등이 들어선 체류형 관광지대로, 다도해권은 판타지 아일랜드를 목표로 테마섬과 해양레포츠산업, 크루즈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남도문화권은 휴양·헬스케어벨트로, 고흥·사

천은 항공우주 스페이스 단지로 특화해 개발하는 게 주된 목표다. 이같은 발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남해안 해안선과 섬을 잇는 국도 77호선(목포~부산)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남해안 일주 철도를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하는 한편, 광주~완도, 통영~거제간 내륙 연계 고속도로망도 건설해 목포~부산간 2시간대 통합생활권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되면 생산유발효과가 48조원에 이르고 부가가치효과도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22만개의 일자리도 새로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이 계획은 그러나 일부 시범 사업을 제외하곤 연도별 사업 계획이나 예산안 등 세부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전남도는 그러나 김 총리 내정을 계기로 이같은 계획의 구체화가 이뤄져 본격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관련 분야를 점검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무총리 내정자인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와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지난 2005년 2월 경남 통영 마리나리조트에서 '남해안시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남해안권 개발계획 주요 내용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남해안을 ▲동북아 경제·물류 ▲해양 관광 ▲영·호남 협력 발전 등 세 가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방안이다. 지역으로는 전남과 경남, 부산 해안선에 연결한 35개 시·군(1만2753km)에 걸쳐 있다. 전남의 경우 모두 16개 시·군(광양·순천·여수·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진도·영암·목포·신안·함평·영광)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한려수도권(여수~사천~통영~거제) ▲다도해권(신안~진도~완도, 기타 섬 지역) ▲남도문화권(강진~순천~남해) ▲도심권(고흥·사천)으로 나눠 특색있는 종합 관광·휴양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한려수도의 경우 청정해역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단지·친환경 리조트·가족휴양단지 등이 들어선 체류형 관광지대로, 다도해권은 섬의

남해안 35개 시군구 4개 권역별 경제·물류, 관광·휴양 거점 육성

특징을 활용해 테마 개발과 해양레포츠산업, 크루즈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판타지 아일랜드로 개발한다. 또 남도문화권은 슬로시티, 녹차 및 한방 등을 산업화해 휴양·헬스케어벨트로, 고흥은 항공우주 스페이스 단지로 특화해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테마관광 활성화를 위해 진도~진해~거제를 해상영양벨트로 묶어 이순신 장군 등 역사자원을 활용하는 한편, 해남~진도~통영은 남도문화 탐방벨트로 육성키로 하고 어촌문화·음악·당

진시간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녹색길, 공룡화석지 등 자연자원을 결합해 개발한다.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는 글로벌 경제·물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중소형 조선소가 밀집한 신안과 엔진·부품 산업 등이 활성화된 영암지역의 경우 조선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해 글로벌 경제·물류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고분자 융복합(고흥), 마그네슘 부품(보성) 등의 첨단 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영암·광양 등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생태산업 단지로도 개발도 병행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내 양대항인 광양·부산항은 산업·비즈니스·관광·IT 등이 융합한 포트 비즈니스 밸리(Port Biz Valley)로 조성, 동북아 종합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에 따라 광양항의 경우 컨테이너 부두를 확충하고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건축자재 생산·유통 거점인 하우징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여수·목포 등은 노후 항만을 재정비하면서 크루즈항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동서통합 및 지역상생 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에 따라 섬진강을 중심으로 영·호남이 교차하는 남중권(여수·순천·광양·사천·하동·남해)을 남해안권 발전의 중추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여수·광양·하동·섬진강변을 잇는 100리길에 벚꽃·매화·녹차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자연거길·도보길·마라톤코스 등을 조성하고 스토리텔링형 테마로드를 만들고 동서교류 촉진을 위한 연륙교도 검토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남해안 발전계획 국가계획 입안 김총리 내정자·박준영지사 주역

남해안권 발전계획이 국가계획으로 입안되기까지는 김 총리 내정자와 박준영 전남지사의 노력이 컸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두 사람은 모두 보궐선거로 지사직에 오른 뒤 남해안을 수도권에 견줄 경제 축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줄기차게 강조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김 총리 내정자와 박준영 지사는 지난 2004년 6월 보궐선거로 도지사에 당선됐다. 김 내정자는 6년간 도지사 재임하면서 '남해안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박 지사도 남해안 발전을 위한 '겉

러시 아일랜드' 및 남해안 관광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왔다. 박 지사의 경우 청와대 공보수석 때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인의 미래가 보인다'는 책을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소개할 정도로 남해안시대를 선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지사 재직 시에도 긴밀하게 협력했다. 지난 2005년 2월 '남해안 공동선언' 발표를 시발로 남해안 개발의 밑거름을 그리기 시작했고 남해안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등 남해안권 개발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지을기자 dok2000@

Advertisement for 'Free Education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중소기업을 위한 핵심직무능력향상 무료교육) at the POSCO Future Leaders Academy. The ad features a large banner with text and images of people, and a table listing details for different levels of training.